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 T. 714-732-1484 / 발행인: 김홍식 / 편집인: 나삼진



각종 그릇과 세포들



이사장 김홍식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감사와 사랑의 계절이다. 오래간만이라도 가족, 친지들과 만날 수 있다면 행복이다.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함께 고생하면서 가족 간에 나누는 사랑이 행복이었다”라고들 고백한다. 모임에서는 그리움을 담은 음식을 함께 나눌 때 기쁨이 크게 더해진다.

음식의 종류가 많을수록 담은 그릇도 다양하다. 크고 작고, 둥글고 네모 난 사기그릇, 고급 도자기의 본차이나, 은그릇, 나무그릇, 절그릇도 한식에는 필요하다. 집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색깔이 어둡게 변한 은그릇을 치약을 문혀 천으로 문지르니 반짝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요즘 그릇들은 모양도 제각기 특징이 있다. 접시인데 가장자리가 구불구불 하게 종이를 접어놓은 것에 금박을 입혀 놓은 것도 있다. 각종 소스를 담은 예쁜 작은 그릇이나 차와 커피를 담은 용기나 찻잔은 그 자체가 예술이라 입맛을 돋우어 줄뿐 아니라 보는 자체로 즐거워지기도 한다. 당연히 각종 그릇은 음식이 담겨지고 손님들에게 들려질 때 가장 필요한 물건이 된다.

그릇뿐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도 생긴 것이 다르고, 기능도 다 각각이다. 예로, 콩팥에서 사구체는 둥글게 만들어진 얇은 체 같이 생겨 피를 거르는데, 피가 여과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크고 전기를 띄고 있는 물질들은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고 몸 안에 간직 되게끔 생겼다. 설령 사구체에서 빠져 나간 물질들도 긴 세뇨관을 통과해서 소변으로 빠져 나갈 때까지 몸에 필요한 물질들은 대부분 흡수되게끔 세포가 생겼고 기능을 한다. 흡수되지 않고 남은 노폐물과 수분은 소변이 되어 요관으로 빠져나와 방광으로 모인다.

요관과 방광을 특별히 물질을 흡수하는 세포가 없고 소변을 나르는 통로로 생겼다. 다양하게 디자인 된 이런 세포들은 그것의 설계자의 의도에 맞게 사용될 때 가장 큰 효과와 의미가 있다.

소화 장기인 위장도 우리 몸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겼다. 작은 자루 같은 위에서는 강력한 근육으로 음식을 잘게 부수고 섞어주고, 십이지장은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을 췌장과 담낭과 연결된 관으로 들어온 췌장의 소화액과 담즙을 섞어 소화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한다. 십이지장과 췌장관, 담즙관의 연결된 모양을 보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관들이 연결된 그릇이란 생각이 든다. 십이지장에서 일부, 나머지 모든 영양분은 소장에서 흡수된다. 소장은 영양분 흡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많은 주름과 융모의 모양으로 표면적이 넓게 되어있다. 융모가 없는 원통형의 대장에서는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고 찌꺼기를 모아 대변을 생성한다.

사람들도 각자 다른 신체와 성격, 뇌를 가지고 태어났다. 각 개인이 모두 다르지만 교육을 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기능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본인에게 주어진 더 큰 사명과 목적을 깨닫고 거기에 걸맞게 사용될 때에 우리의 기쁨과 삶의 의미는 더욱 풍성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가 절그릇 같은 존재 일지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담고 있으면 우리 삶은 의미를 찾게 된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우간다 선교 소식

이상철 · 고유덕 선교사

할렐루야! 우간다 이상철 · 고유덕 선교사입니다. 저희의 12월 기도 제목을 올려 드립니다.

1. 우리 목회자와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되어 약한 교회와 학교가 부흥하고 성장되게 하옵소서.

[현재 27교회, 선교유치원 10개, 초등학교 2개이나, 교회 시작 역사가 짧고, 목회자 훈련이 부족해서 교세가 약합니다. 매 2개월마다 한 주간 목회자와 신학생 신학과 성경공부가 있고, 학교 교직원들은 매일 아침 예배와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 아미나선교열린(AMO) 중학교의 부지 확보 및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는 교육벨트(유,초,중고,대학)을 만들어 베이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교육 사역의 목표입니다. 속히 부지와 건축비 확보가 시급합니다.]

(일단 학교 건물이 건축될 때까지 대학을 이용하여 중학교를 시작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개교 허가는 받았습니다.)

3. 아미나동아프리카 대학교(AEAU)의 강당 건축과 진입도로 개설이 되어 개교 허가를 얻게하옵소서.

[대학은 강당 이외에 중요 건물이 완공되었고, 교육부에 개교 허가를 신청한 후 실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강당과 진입로가 빨리 되어야겠습니다.]





4. 아미나선교열린훈련원(유치원교사양성학교)의 개교가 순적하게 하옵소서.

[3년 전 우간다 교육법이 바뀌어 초등교사 양성은 대학 과정으로 가고, 유치원은 직업학교(훈련원)에 속하게 되어 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해서 직업기술학교를 개교해야 합니다]

(이것도 건축이 될 때까지 중학교와 함께 대학에서 하도록 지방 정부의 개교 허가를 받았습니다.)

5. 아미나선교열린메디컬 센터(AMO MC)의 개원을 위한 모든 진행이 순적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교회 조직 모델은 한국의 고신교단입니다. 다른 것은 유.초.중고 대학까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메디컬센터(의료 선교)를 2027년 개원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6. 소로티열린유.초등학교의 교실동과 코티도와 우수크의 선교유치원 등 진행하는 모든 건축이 안전하고 순적하게 하옵소서.

[건기는 비가 내리지 않고 학교가 방학하기 때문에 교실과 예배당

등 건축에 전념하는 기간입니다. 아빔아미나 선교유치원의 건축비가 절반만 모금되어 후원이 필요합니다.]

7. 내년 2026학년도에 신실하고 우수한 교사와 교직원이 채용되도록 하옵소서.

[우간다 사립초.중고는 매년 교사와 교직원을 계약하는 제도인데, 12월과 1월은 그 시기입니다.]

8. Uganda & E.A JOY 라디오 방송사역을 맡을 자를 보내 주소서.

[한국 CTS RADIO와 협력으로 스마트 라디오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아직 담당할 사역자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 저희와 동역 선교사들이 영육이 건강하고 성령충만하게 하옵소서.

[김원희(통합 장로) · 김희숙 부부는 음악과 한국어 교육, 이찬희(고신 목사) · 김다솔 부부는 큰아들 내외(손주 노엘과 노아)

아멘!! 감사합니다!!



남아공 선교 소식

김재수 • 김순희 선교사

존경하는 목사님과 교우님들께,

2025년도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종과 함께 남아공을 위한 선교사역에 재정으로 기도로 참여하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그리고 신년도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학 시절부터 포함하면 37년째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최고의 선교사역은 개혁주의 지도자 양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남아공에서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하신 것과 같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한 제자는 현재 이곳 대학교의 교수이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옆사진은 올해 졸업 후에 아너스과정 강의)



아프리카 교회를 위한 신학교육의 중요성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 이곳 신학자들 사이에서 최근에 들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신학 교육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디지털 발달로 인하여 지금 아프리카 지역 교회들의 활동들 그 가운데서 비성경적인 요소가 아주 잘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의 신학교육 부재

이런 상황에서 남아공의 한 대학교수는 아프리카 전 대륙의 교회 지도자들의 약 15%가 신학교육을 받고,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목회자들은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논문에서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목회자들 개인의 독특한 영성

다른 한 보고서는 97%에 해당하는 아프리카의 교회는 설립자 한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고, 그래서 교회의 평균 수명은 2년 10개월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 교회는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고 남아공화국 내에서 급성장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

라졌 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교수는 지역교회의 역할이 모든 면에서 아주 중요한데 아프리카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 아니라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영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남아공의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9월달에 오신다고 영국 국영 방송국과 인터뷰 했다가 오시지 않자,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세 번이나 변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종하는 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혹은 가진 소유물을 팔기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님에도 이런 일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신학교육의 부재의 한 현상입니다. 아프리카의 교단신학교에서 3년간 수업을 마친 후에 희망봉 신학교에서 4년차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소위 신학자들의 계시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니 계시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신학의 흐름이 아프리카 전역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희망봉 신학교 계획


앞에서 언급한 아프리카의 이런 상황에서 희망봉 신학교는 이곳 아프리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에게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지금 현재 3개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수학하며 두 사람은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십일조를 통하여 자립하는 교회를 세우도록 가르칩니다. 자립은 어렵지만 이를 항상 교육 시간에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를 위한 인재들을 양성하도록 가르칩니다. 아프리카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미래의 인재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희망봉 신학교는 이런 계획들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로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제목

1. 김재수 · 김순희 선교사 가정의 건강과 지속적인 재정의 후원과 사역을 위해서,
 2.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개혁주의 신학 교육으로 목회를 위해서 준비를 잘 시킬 수 있도록,
 3. 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은 하지만 재정의 부족으로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는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사회의 치안과 안정: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웨스뱅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선교 보고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MERRY
Christmas

축 성 탄

복된 성탄의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정성스러운 기도와 헌금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아프리카와 그 백성들을 품고
 함께 기도와 사랑의 손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 USA 이사장 김홍식 외 임직원 일동





"무너진 담 앞에 세워진 거룩한 연합의 파수꾼"

남아공 이규성 선교사

먼저 저희 남아공 케이프타운 선교지와 살롬주의군사교회를 향한 미주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무너진 담 앞에서 시작된 ‘느헤미야의 연합’

지난 주 화재로 인해 교회 울타리와 페타이어 담이 소실되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현지교회 리더십과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밤마다 선교센터 부지를 지키는 ‘불침번’을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불침번은 단순히 물리적인 경비가 아닙니다. 이는 “무너진 성벽”을 본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저희의 선교 터전을 악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려는 연합의 의지입니다. 한 손에는 무기(기도와 말씀)를, 다른 한 손에는 공구(헌신)를 들었던 느헤미야의

공동체처럼, 우리는 기도와 헌신으로 사역의 영적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다음 세대의 미래, 교육센터 건축 현장을 지킵니다.

이 선교센터 부지를 안전하게 지켜내야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고 거룩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살롬주의군사교회 옆 부지에는 이 가난하고 낙후된 타운십 지역(underprivileged area)의 다음 세대를 위한 방과후 교육센터와 직업훈련 센터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센터들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 리더들이 양육되며 교육되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화재로 인한 치안 공백은 이 귀한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불침번과 담 재건 노력은, 곧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공간을 안전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3. 영적 부흥의 성벽 재건을 위한 동참을 요청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단순히 물리적 안전 회복을 넘어 영적 부흥을 가져왔듯이, 저희는 이 아름다운 연합과 단결을 통해 선교 센터의 담과 울타리를 재건하여 더욱 안전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물리적인 성벽 재건은 다음 세대의 교육과 영적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발걸음입니다. 치안이 취약한 연말을 대비하여 속히

안전한 담벼락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너진 담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쌓아 올리는 저희의 거룩한 노력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미주지부 아프리카 미래재단에게도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긴급 도움을 요청합니다

화재로 인해 울타리 새로 세워야, AFF남아공지부 이규성 선교사지역

〈긴급 통신〉 지난 주, 저희 선교지인 남아공 크라이폰테인 왈라스딘 지역의 살롬주의군사교회 울타리 근처에서 발생한 큰 화재로 인해, 교회 정면에 있던 페타이어 담과 펜스가 완전히 소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교회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낙후되고 치안이 매우 취약한 왈라스딘 지역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강도와 도난의 위험이 커집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인 담이 사라지면서, 아이들과 주민들의 피난처인 교회의 안전과 치안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더 큰 사고를 막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속히 튼튼한 담벼락 공사가 시급합니다.

교회의 안전한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이 급

박한 상황을 극복하고 교회의 안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땅에 안전한 믿음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급 목표 : 화재로 소실된 담벼락 재건 공사 (교회 안전 확보)

저희 Mission4africa 사역과 사역지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는 모든 동역자님들과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왈라스딘 지역에서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살롬주의군사교회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도록 그리고 교회가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기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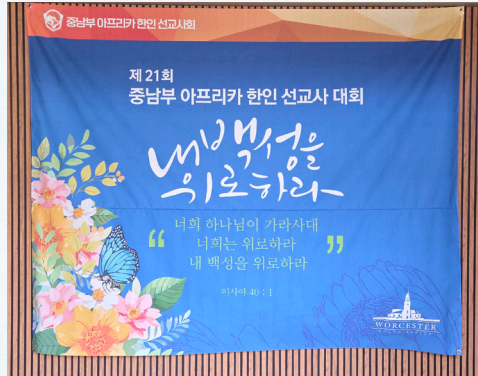
에스와티니 비전트립과 선교사회 의료봉사

아프리카미래재단은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에스와티니 기독교대 특강과 수술 기구 전달 및 수술 교육 등을 지원 하고, 중남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에서 의료봉사를 했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이 출범할무렵, 에스와티니 선교사들이 뜻을 모아 나라에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의과대학 설립 협력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것이 AFF의 창립 동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 여러

해 준비하던 중에 선교사와의 견해 차이로 인해 사역을 분리하게 되었고, 이후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여러 나라의 의료보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지원하면서 의료보건교육 전문 NGO로 발전하게 되었다.

에스와티니기독교의과대학은 지난해 17년만에 인가받고, 첫 입학생을 받아 한 해 동안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아프리카미래재단 비전트립은 먼저 에스와티니 크리스천의과재학 (EMCU)를 방문하여 학생 특강을 실시하였고, RFM 선교병원을 방문하여 수술 기구와 내시경 기구 기증, 내시 경 및 대장 외과 수술 교육 및



지도하고 교수 선교 사님들과 교제 나누었다. 이번 비전트립은 최재걸 이사장을 비롯하여 의료진 6명이 참여하였다.

에스와티니기독교대학은 양승훈 박사가 총장을 맡고 있고, 의과대학은 서울대의대 교수로 은퇴한 박재형 교수가 학장을 맡고 있는데, 학생들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에스와티니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수업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이번 의료봉사와 같이 앞으로도 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21회 중남아프리카 한인선교사 대회에서는 고대안암병원과 구로병원, 안양샘병원 등에 속한 의료진이 참여, 내과, 외과, 소아과, 핵의학과, 한의과 등 의료진 여섯 명의 의료진이 의료 상담과 진료를 하였다.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의료보험이 없고, 현지 사정상 양질의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선교사대회에서 실시하는 건강상담과 진료는 선교사들의 건강을 돌 본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제21회 중남아프리카 한인선교사대회 개최



간 양식이 가득한 시간이었다”며 “오랜만에 동료 선교사들을 만남과 나눔을 이어가며 큰 힘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현지에서 교육 선교와 지역 교회 건축을 병행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가 거의 없어 기본 진료조차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받은 건강검진은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남아공 청년 자원봉사팀이 찬양팀·진행요원으로 참여해 선교사들을 위해 섬겼다. 후원품도 매우 다양했다. 태블릿,

화장품, 전복, 숙박권, 라면, 과일, 다이슨 에어랩까지 평소 구하기 어려운 물품들에 선교사들은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의료 섬김은 ▲아프리카 미래재단 의료팀 ▲요한네스버그 한인교회 치과팀이 맡아 혈압·심전도·치과 검진 등을 제공했다.

아프리카는 국가 간 이동이 길고 교통 인프라가 취약해 항공·차량 일정 조율만 해도 큰 도전이지만 준비팀은 이를 극복해 모든 참가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했다. 김성철 회장은 폐회식에서 “선교사들은 외롭고 가난하며 때로 위협 속에 있다”며 “이번 대회는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며, 앞으로도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 열린 총회에서는 나미비아 사역 박진호 선교사가 제22회 대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선교사는 “아프리카 선교사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영적 깊이와 신학적 성찰을 더한 대회, 더 많은 치유를 제공하는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2회 대회는 2026년 12월, 남부 아프리카 내 새로운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21회 중남아프리카 한인선교사대회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케이프 주의 ATKV Goudini Spa에 12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었다. 중남부 아프리카 9개국에서 사역 중인 330명이 3박 4일 동안 한자리에 모여 ‘위로’, ‘쉽’, ‘사명 회복’을 경험하기 위한 자리였다. 2002년 우간다·잠비아·남아공 등지의 연합 모임에서 시작돼 20년 넘게 진행되어 오는 이 선교사대회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생명줄’과도 같은 버팀목이다.

대회는 한국의 거제 섬김의교회와 남아공 요한네스버그 한인교회가 공동으로 주 후원했다. 3일간의 저녁집회에서 서대경 목사(요한네스버그 한인교회)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사역 현장의 소진과 고립 속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깊은 위로를 건넸다.

서 목사는 “선교는 성공이 아니라 선포”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 강의를 영성·신학·의료·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구성되었는데, 권효상·하재성 교수(고신대 신대원): 선교신학·목회적 돌봄, 홍순철 대표(아프리카 미래재단): 아프리카 사역 환경 분석, 김용기 선교사: 한방의료 선교와 실제 진료, 최승락 교수·김창곤 선교사: MK 정체성·교육 특강 등이 있었는데, 참가자들은 전문성 재교육, 신학적 재무장, 동료들과의 연대로 마음의 위로까지 얻으며 ‘3중 회복’을 경험했다는 평가다.

선교사대회에 참가한 남아공 포체스트룸의 김주립 선교사는 “영육



그리움을 담은 편지가 선교 역사가 되다



나삼진 목사
(Africa Future Fundation USA 사무총장)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 가운데 한부선(Bruce F. Hunt: 1903-1992)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제령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헌트(William B. Hunt)의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외국인학교에서 초중등과정을 공부하고, 미국에 건너가 휘튼대학을 거쳐 안식년에 미국에 온 아버지와 같이 지내기 위해 럿거스대학에 편입해 졸업했습니다. 그는 프린스턴신학교를 졸업하였고, 신학생 시절 농촌교회 사역과 어린이 전도에 특별한 훈련과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동료 배위랑 선교사의 딸 캐더린과 결혼을 하였고, 미국 북장로교회 뉴브루스워드교회에서 목사 임직을 받고, 한국 2세 선교사로서 청주에서 사역하였습니다.

한부선은 미국 북장로교회(PCUSA)에서 정통장로교회(OPC) 선교사로 소속을 바꾼 후에는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사역하였는데,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화로 이념적 일치를 위해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때였습니다. 1938년 9월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반대를 결의할 때, 대부분의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침묵하였지만 그는 '아니오'를 외치며 항의하다 일본경찰에 의해 총회장에서 끌려 나갔습니다. 그는 이후 만주에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교회 지도자들과 연약문서를 채택하고 여러 교회와 성도들과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약했습니다. 그는 일제의 압력으로 봉천교회에서 제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반대 행위로 체포된 그는 포로 교환 형식으로 미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한부선은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중국 선교사로 가기를 바랐지만, 중국의 공산화로 불가능하게 되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국내 정치가 안정되지 않아 아내의 동반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1946년 10월 2일 시애틀을 출항할 때부터 1948년 7월 11일까지 2년 가까이 거의 매일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열심히 선교사역을 하면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매일 편지에 담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모인 편지 2천 페이지 정도가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고, 이것이 20여 고신교회의 협력으로 번역되어 2018년 《한부선 서간집》(전 4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선교저널에 발표한 보고서와 인터뷰, 옥중기까지 합쳐져 모두 일곱 권의 방대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가 그리움으로 아내에게 보낸 편지는 선교 보고서가 되고, 한국의 선교와 해방 후 교회쇄신운동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부선 서간집》을 분석해 '한부선 선교사의 생애와 해방 후 초기 선교 사역'이라는 논문을 쓴 바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 유창한 한국말에 한국의 문화에 친숙했고, 박용규 교수는 그의 석사학위 논문을 보완해 출판하면서 《가장 한국적인 미국 선교사 한부선 평전》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이후 부산을 중심으로 사역했는데, 탁월한 전도자로서 전도 활동을 펼쳤고, 학생운동과 개척교회를 지원하며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주의 학생운동인 학생신앙운동(SFC, Student for Christ)은 그가 시작한 청년신앙운동(YFC)이 발전된 것이었고, 고려신학교(오늘의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로 많은 헌신으로 목회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한 주간 그의 집회에 참여하였고, 대학 1학년 때는 영어성경을 배운 그의 마지막 제자였습니다.

그는 1976년 은퇴해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1979년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개교 50주년 때에 박윤선 박사와 함께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4년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 뉴욕전도대회에서 한국 선교의 공로로 사무엘 마펏 선교사, 존 언더우드 4세와 함께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들 세 가문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대표 가문입니다.) 한부선 선교사는 그렇게 한국교회가 잊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선교사들의 기록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한다고 생각하며 기록을 소홀히 여기지만, 선교사의 일상적인 기록이 모여지면 그 나라의 선교 역사가 됩니다. 선교사는 선교보고서와 글 쓰는 일을 즐겨야 합니다.



박상은 추모 의료선교 세미나 개최



의료선교와 국제보건 분야에서 헌신한 고 박상은 원장을 기리는 추모 세미나 '박상은과 아프리카 선교'가 11월 4일(화), 군포지샘병원 샘누리홀(B1)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아프리카미래재단이 주관하고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이 주최했으며, '박상은과 아프리카 선교'를 주제로 의료선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발표에는 △김진호 고려대학교 교수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 프로젝트 말라위', △홍순철 (사)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의 '의료선교와 NGO의 역할', △이종섭 (사)아프리카미래재단 부대표/안양샘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의 '의료선교 현장 경험과 제언', △Dr. Abebe(에티오피아 MCM병원)의 '한국의 교육훈련 지원이 에티오피아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과 기독교 선교 관점에서의 현지인의 시각', △박재형 교수(에스와티니기독교의과대학)의 '박상은 원장과 에스와티니 기독교의대' 등이 있었다. 발표자들은 박 원장이 평생 실천해 온 '의료를 통한 복음과 나눔의 삶'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의 의료선교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아프리카 현지의료 인재 양성과 협력적 국제보건 모델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최재걸 (사)아프리카미래재단 이사장은 "박상은 원장님은 의료와 신앙, 리더십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분으로,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삶으로 보여주셨다"며 "그분의 비전을 이어 아프리카의 발전을 책임질 다음 세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투데이N 정성귀 seungkwi@cts.tv)



Journey for New Hope, 88,000불 특별 헌금

서울메디칼그룹에 속한 의사들로 구성된 NGO Journey for New Hope(이사장 송채원 장로)는 연말에 특별헌금으로 88,000달러를 헌금했다. 이들은 선한 사업을 위해 함께협력하고 있는데, 그동안도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헌금을 보내왔다. 이날 헌금에 참여한 의료진들은 김홍식(Hong Kim), 홍훈기(Hoon Hong), 김방선(Bang Sun Kim), 하태준(Robert Ha), 장 폴(Paul Chang), 송채원(Chawon Song) 등으로 이 가운데는 우간다 김세현 선교사 여구 지정헌금 10,000불도 포함되어 있다. 아프리카미래재단 미국 본부는 이들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두렘돈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두렘돈 장학재단의 2025년 장학금 수여식이 오렌지카운티한인 교회에서 있었다. 이날 조진회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남성수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제2부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아프리카 학생들의 장학금 연 3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가 장학금을 수령하였다. 두렘돈장학재단은 매년 2천 불을 보내 오고 있는데, 에반겔리아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아프리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전달하였다. 대학 당국에서는 이 장학금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보내왔다.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www.africaffusa.org

